

ASIANA

culture, style, view

Monthly In-flight Magazine
December 2014



AIRLINE
of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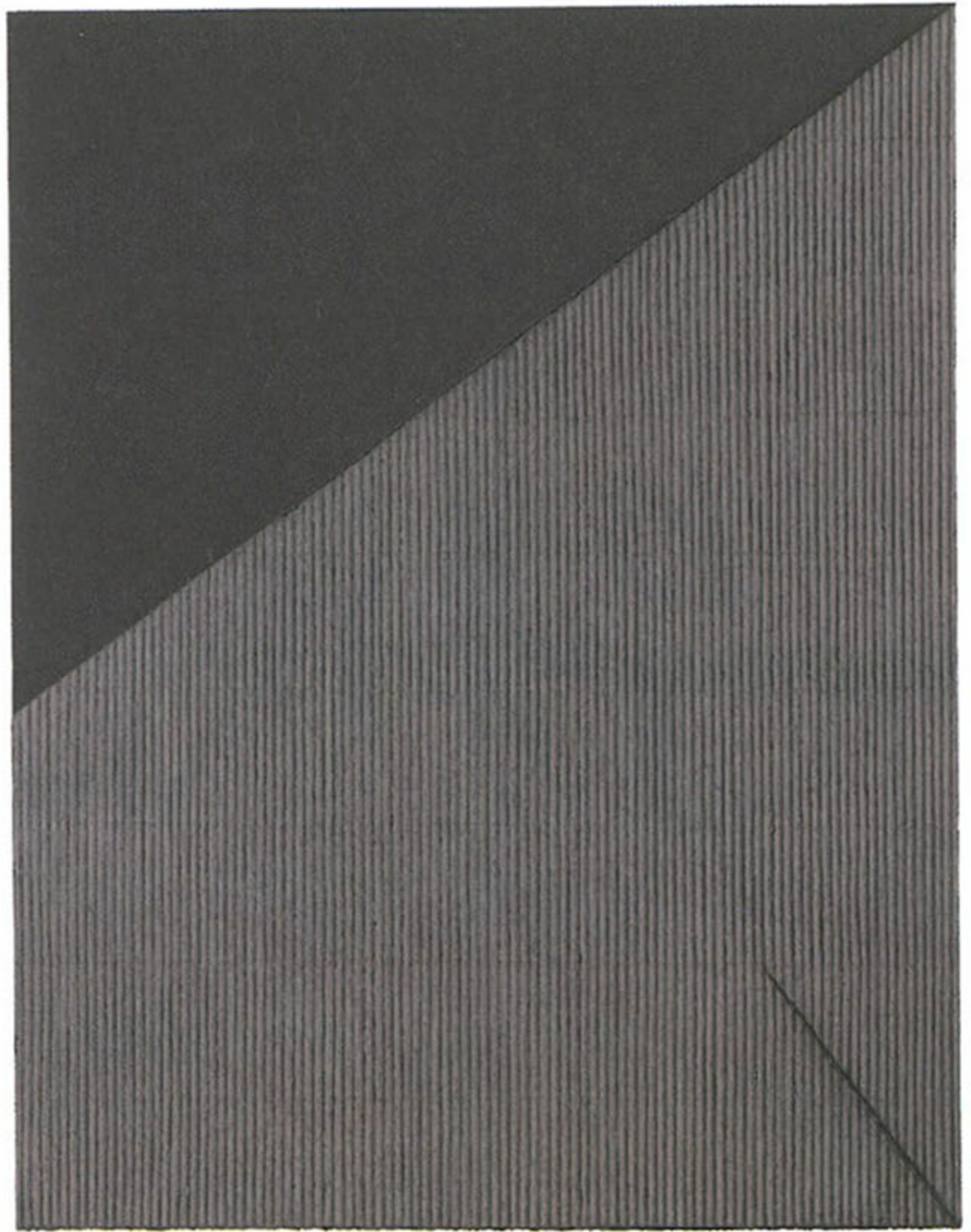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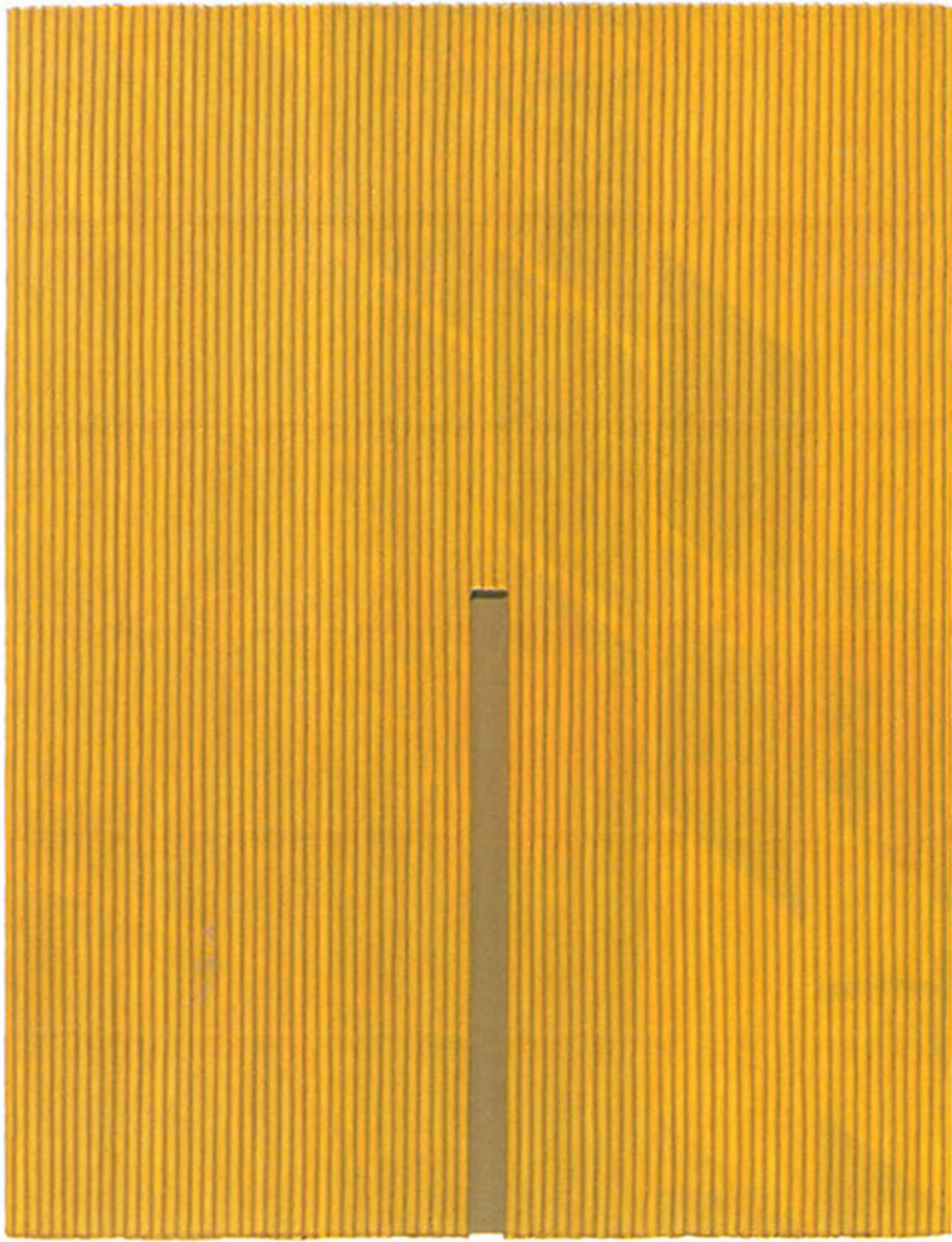
Five-Time Winner

2012 Business Traveler*
2012 Premier Traveler
2011 Global Traveler
2010 SKYTRAX
2009 ATW
(*Best Overall Airline in the World)

ASIANA AIRLINES

A STAR ALLIANCE MEMBER





한국 추상 미술의 대가 박서보.
파리에서 첫 번째 전시를 연 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 그가 다시 파리 페로탱
갤러리에서 '묘법' 시리즈 40여 점을
선보인다.

글. 올리비에 르노(Olivier Reneau)

talk

박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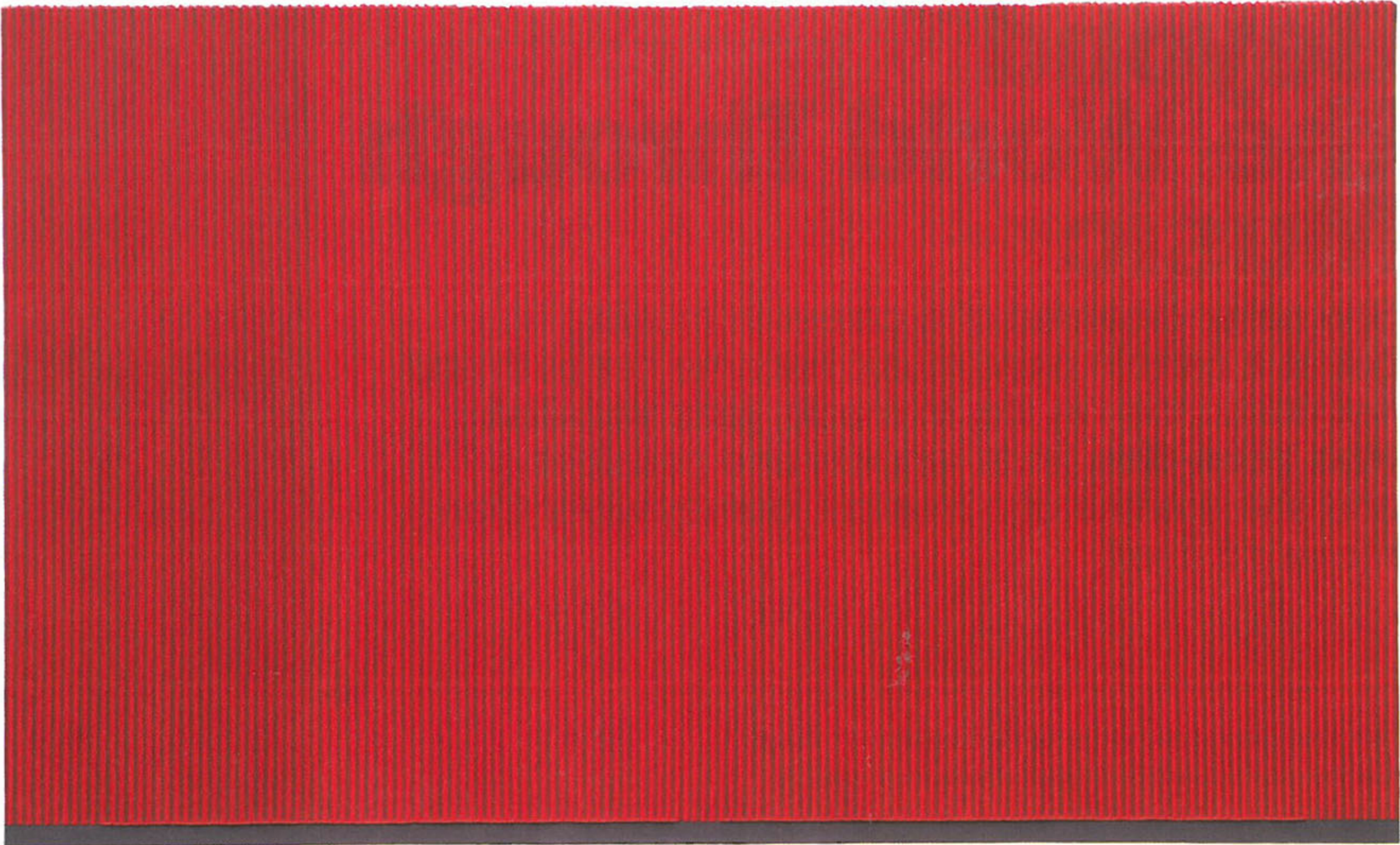
1961년 박서보(1931년생, 경북 예천 출생)는 유네스코에서 개최한 전시 '세계의 젊은 화가들'에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파리에 처음 왔다. 전시 기간이 연장되면서 예상보다 좀 더 오래 파리에 머물게 되었는데, 결국 1년이나 머물면서 자신의 작품을 이른바 앵포르멜(informel, 비정형) 장르로 변화시켰고 후에 이것은 '묘법(描法, Ecriture)' 시리즈가 된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만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시기는 그의 작품 활동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작가의 말처럼 진정 '손의 여행'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곧바로 표현주의적 스타일의 그림으로 나타난다.

그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거의 언제나 밝은 컬러로, 여러 번의 붓칠로 유화를 그리고,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곡선을 반복적으로 그린다. 마지막 단계는 거의 퍼포먼스에 가까운 몸짓으로 마무리하는데 이는 그의 행동을 정신적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말하자면 배출에 가까운 행위다.

컨템퍼러리 아트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서양 스타일의 작품 말이지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에서 미술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어서 미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다 서양 미술을 가르치는 예술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김환기 선생을 알고 있었어요. 김환기 선생은 한국의 추상 미술을 도약시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화가지요. 사실 선생한테 배우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 덕분에 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작 본인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사실 부산에서 공부하는 동안 대한민국미술 전람회에 갔었어요. 그런 종류의 전시 중에서는 매우 공인된 전시였지요. 그런데 그 전시에 걸린 그림들이 당시 한국이 겪고 있는 비극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 그 그림들은 너무 너그러웠고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니다.



1 2 | 3

1. <묘법 No.130924> 2013, 170×130cm
2. <묘법 No.980613> 1998, 260×200cm
3. <묘법 No.101104> 2010, 180×300cm
모두 캔버스 위 한지와 혼합 재료

예술을 좀 더 정치적으로 생각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예술은 사회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절 체 게바라에 크게 매료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내 작품을 출품한 뒤에는 정말 많은 비평을 받았어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이지요. 더 이상 전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페로탱 갤러리 전시에서 선보이는 1970년대 작품 3점은 다른 작품과는 많이 다르게 표현주의적입니다. 이 작품들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시리즈의 작품은 준비하는 데 꼭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내내 질감(마티에르)을 만들어내기 위해 붓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동시에 최후의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발적이면서 단호한 제스처로 캔버스 표면을 온통 연필로 덮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식의 작품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 그림들은 바로 그 시대에 부합하는 것이죠.

좀 더 기하학적인 다른 작품들에서는 풍경과 함께 건축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나는 자연뿐 아니라 일상과 건축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직각 형태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다리의 기둥입니다. 내가 그 다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기둥들은 서로 섞이다가 하나가 됩니다(그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펜을 집어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햇빛이나 수평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하고 그것을 캔버스에 옮깁니다.

그는 한지를 캔버스에 여러 겹 붙이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이런 준비 과정은 그에게 좀

더 기하학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의 그림은 20세기 중반 서양의 컨템퍼러리 아트를 관통한 미니멀하고 컨셉추얼한 그림에 가깝다. 그렇지만 그는 손가락이나 도구로 홈을 파내 이런 새로운 표현주의적 그림을 억압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입체적인 짜임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일에 그림을 매달아 그림이 그 자체로 오브제가 되면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든다.

미국 비평가 바버라 블로에밍크는 그의 작품이 진정한 삼차원성을 띠어 정면뿐 아니라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작품을 선보인 지 50년, '묘법' 시리즈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박서보는 여행과 세상에 대한 관찰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색채를 다룸으로써 이 시리즈를 계속 변화시키고 있다. ●

박서보(Park Seo-Bo)의 전시 '묘법(Ecriture)'이 파리 페로탱 갤러리(Galerie Perrotin, Paris)에서 12월 20일까지(until Dec. 20) 열린다.